

성배인회관내에「녹색의전화」를
환경문제상담실(녹색의전화)
환경오염예방과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받는다.
(전화 784-2004)



朴英淑 平民의원
「녹색의전화상담실」개설
입은 28 淑의원 朴英淑

3,2004

90.8.21.경남.

환경문제상담실 개설하는 평민당 부총재 박 영 숙씨

필당호. 끝재채취, 뚝본의 이산화탄소농사업 국내진출 등 굵직굵직한 환경문제마다 정부를 끈질기게 물고늘어지 온 박영숙(58) 평민당 부총재가 환경문제상담실을 열고 '녹색의전화'를 개통하는 등 환경운동 지원에 직접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의원직 사퇴후 재출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성백인회관 2층의 사무실을 아예 환경문제상

은 그런 현지조사를 상설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녹색의 전화를 통한 전화상담뿐 아니라 주 3일은 전문가가 방문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상담위원이 현지방문상담도 할 계획입니다."



“녹색 전화’ 통해 공해예방 법률상담할 터”

담실로 꾸며놓고 28일 현판식을 갖는다. “정계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고 싶었던 환경운동에 이제 흥가분하게 몰두할 수 있게 됐지요. ‘녹색의 전화(784-2003, 2004)’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공해피해 구제나 공해예방을 위한 법률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 의원은 올 들어서만도 필당호 끝재채취, 실악산 자연과괴, 인천 해양오염, 서울시 정수장 DDT 오염 등 중요한 환경현안에 대해 조사단장 자격으로 현지답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였다. 이번 상남실

국정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질문공세로 고위 환경관리들로부터 “못해. 먹겠다”는 실태를 들을 만큼 ‘악명’이 높았던 박 의원은 “정부의 낮은 환경인식에 실망했다”고 말한다. “환경청이 처로 승격되었을 뿐 환경보전 논리는 여전히 안먹히지 않습니까? 환경청은 분산된 환경업무를 하나로 모아오고 소신껏 환경행정을 펴야 합니다.” 당지도부가 기자회견 등에서 환경문제를 언급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한다는 박 의원은 “행정부의 환경전문가의 일문일답

으로 써들하기 위해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지난해 뚝본의 이산화탄소농장들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이유와 최루탄의 해로움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정작 국감과 국회의 일정 때문에 질문기회가 없어져 아쉬웠지요.” 쓰레기문제, 식품오염, 식수문제 등 여성의 참여가 환경문제 해결에 꼭 필요하다고 믿는 박 의원은 “앞으로 후손의 생명이 달려 있는 반핵평화운동에 여성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흥섭 기자〉